

광주·전남지역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Expert Incubator Plans for e-Trade Activation in Gwangju-Chonnam Areas

서갑성(Kab-sung Seo)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IV. 성공사례를 통한 전자무역 전문인력
양성방안 |
| II. 광주·전남지역 전자무역의 실태 | V. 결론 |
| III. 광주·전남지역 전자무역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교육현황 | 참고문헌 |

Abstract

Nowadays, practical use of the internet is generalized in enterprise's business management as well as individual's everyday life. Also using internet, E-trade has given the very important meaning to company which do import and export as a part for extension of more opportunities and business scopes.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s of industrial frame and information level in Gwangju·Chonnam areas to achieve the easy and wide using of e-trade systems. Next, I examined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 of education systems regarding e-trade expert incubator program of Gwangju·Chonnam area. Finally, this study presented the successful cooperation model of Chosun university TI center in industrial section, educational section, and government section for more effective development systems of e-trade expert incubator program.

Key Words: e-Trade, Trade Incubator Program, Internet, Gwangju·Chonnam Areas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조선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I. 서론

오늘날에는 개인의 일상에서부터 기업의 경영관리에까지 인터넷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무역업무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off-line 방식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on-line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은 9.11 테러사건, 중국의 SARS, 중동사태 등 국제환경에 따라 전자무역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신제품창출이후 해외시장마케팅 활성화 등 무역과 관련한 제비용을 절감하여 글로벌시대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전자무역의 활성화에는 이견이 없다. 물론 전자무역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않더라도 기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보다 많은 기회와 영역의 확장을 위한 한 부분으로서 전자무역은 수출입을 하는 업체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

광주·전남지역은 화학, 철강 등의 소수의 장치산업(광양제철, 여수석유화학단지)과 전지전자, 기계부품 등의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이 함께 공존하는 산업구조와 서비스위주의 3차산업 및 농·수산물기반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GDP에서 광주·전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5% 내외의 비교적 낮은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시점에서 기존의 무역 거래방식에서 광주·전남이 수행하였던 역할을 새로운 방식인 전자무역의 도입 및 활성화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제시된다. 하지만 전자무역의 특성은 전세계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 또는 중개상이 기존의 제한적인 정보의 공유에서 벗어나 일부 계층만이 누리던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저렴하고,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기존 거래방식보다는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통한 제품 판매의 기회와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해외시장마케팅을 비롯하여 무역실무전반에 걸친 전문인력, 즉 산학연계 교육을 통한 현장교육을 통한 실제적인 인력, 기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외국어 구사 및 IT능력을 갖춘 전문영역의 실무지식을 겸한 인력 등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무역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되어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먼저 광주·전남의 전자무역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이 지역의 산업구조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전자무역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화, 즉, 광주·전남지역의 정보화 기반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의 무역인력양성과 관련한 교육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광주·전남지역 전자무역의 실태

1. 산업구조

1) 수출입 현황

광주·전남지역의 수출입현황은 2003년 말의 자료를 기준으로 수출은 최근 3년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수입이 더 많아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표 1>에서 보여주듯이 전국 수출입 현황을 보면 광주·전남이 우리나라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기여도는 과거의 추세와 비교하여 볼 때 점차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된 증가요인은 대기업기반의 첨단산업 및 중화학산업의 수출증대와 광산업과 같은 특수산업의 유치를 통한 수출증진이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표 1>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총괄

(단위 : 백만불, %)

년도	수출			수입		
	전국	광주·전남	비율	전국	광주·전남	비율
2003	193,817	4,035	6.7	178,827	2,966	8.9
		8,884			12,911	
		12,919			15,877	
2002	162,471	3,598	6.2	152,126	1,741	8.1
		6,426			10,551	
		10,024			12,292	
2001	150,439	3,095	5.5	141,098	1,710	8.1
		5,177			9,777	
		8,272			11,487	
2000	172,268	3,183	11.0	160,481	1,844	7.9
		15,805			10,781	
		18,988			12,625	

자료 : <http://www.kita.net>

2) 산업별 수출 현황

광주·전남지역의 수출품목중 중화학제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천·광양만권 및 대불산단의 중화학단지에 국한되었는데, 향후 중화학공업지역의 해외이주 및 해외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생산력감소는 광주·전남지역의 산업공동화 및 수출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수출선 다변화를 꾀하기 위한 산업구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음의 <표 2>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산업별 수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광주·전남지역 산업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

		1차산업		공산품				IT제품		기타		
				경공업	중화학제품	계						
2003	광주	36	179	711	753	3,282	11,980	12,733	1,579	1,591	1,703	10,389
	전남	143		42		8,698			12		8,686	
2002	광주	31	164	152	187	2,911	9,169	9356	1,399	1,410	1,513	7,760
	전남	133		35		6,258			11		6,247	
2001	광주	35	165	679	703	2,885	7,908	8611	1,267	1,272	1,618	6,635
	전남	130		24		5,023			5		5,017	
2000	광주	30	179	31	51	3,122	8,758	8809	1,639	1,656	1,483	7,102
	전남	149		20		5,636			17		5,619	

자료 : <http://www.kita.net>

2. 광주·전남지역 정보화 기반

1) 정보화 지수

(1) 지역별 정보화 수준

광주광역시와 광안읍 등 지역발전 선도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위해 한국광산업진흥회, 광기술원 등을 설립했고, 3만평 규모의 광산업집적단지 조성함으로써 광 관련 기업의 지역내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인터넷생활정보서비스 민간투자 사업, 지하시설물 도수치 지도화 사업, 공무원 및 시민 정보화 교육, 부동산민원행정종합 정보망 운영, 지방행정정보망확충사업, 행정정보화 사업추진, 지방행정 정보은행시스템 고도화 등의 지역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도는 정보활용의 생활화를 위한 공무원, 주민 정보화교육의 지속적 추진, 지역 실정에 맞는 S/W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지식 집약적 생산수단과 고용창출, 지식 경영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운영시스템의 글로벌화를 통한 행정의 생산성 증대를 정보화의 목표 및 추진 방향으로 하고 있다.¹⁾

다음의 <표 3>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화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1년과 비교하여 2002년에는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호남권의 정보화는 오히려 수준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이규훈, "e-Biz관련 지역별 일반현황", 「지역균형발전과 e-Biz 활성화 정책세미나」, 산업자원부, 2003.6, pp.158-159.

<표 3> 지역별 정보화 수준 분포(100점 기준)

구분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기타
2002	48.5	49.4	49.1	47.9	40.6
2001	48.0	48.6	47.6	48.4	41.5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보화수준평가”, 2002.

(2) e-비즈니스의 인식 및 인력

광주·전남 대부분의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는 포괄적인 e비즈니스의 개념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e비즈니스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기초단체 및 광역단체 등의 정부부문에서 전자무역을 위한 기반인 인식 및 지원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 4>에서는 광주·전남지역 e비즈니스 개념의 인식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e비즈니스 개념의 인식

구분	광주·전남(기초)	광주·전남(광역)	전국(기초)	전국(광역)
업무혁신	10.5	13.8	8.3	7.9
전자상거래	15.8	0.0	6.0	5.9
인터넷비즈니스	15.8	10.3	15.5	12.9
업무효율성제고	15.8	27.6	16.7	30.7
모두	42.1	48.3	53.6	42.6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 이규훈, “e-Biz관련 지역별 일반현황”, 「지역균형발전과 e-Biz 활성화 정책세미나」, 산업자원부, 2003.6, p.162.

이러한 상황에서 e비즈니스를 위한 인력은 필수적인데 다음의 <표 5>를 통해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조직에서 e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인력은 대부분 10%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e비즈니스의 활성화 및 전자무역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표 5> e비즈니스 담당 인력 현황

구분	광주·전남(기초)	광주·전남(광역)	전국(기초)	전국(광역)
5% 미만	47.4	44.8	40.5	40.6
5-10%	21.2	17.2	25.0	24.8
10-15%	5.3	6.9	8.3	10.9
15-20%	15.8	6.9	14.3	7.9
25% 미만	10.5	24.1	11.9	15.8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 전계자료, p.163.

(3) 기업의 e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 인식

e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인력의 육성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다음의 <표 6>에서는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프라 필요분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업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전문 인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금융과 같은 정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우수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표 6> 기업의 e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 필요분야

구분	광주·전남(기초)	광주·전남(광역)	전국(기초)	전국(광역)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15.8	0.0	13.1	5.9
소프트웨어와 솔루션	15.8	17.2	14.3	13.9
전문인력	36.8	27.6	32.1	31.7
데이터베이스	5.3	27.6	22.6	22.8
비즈니스모델	26.3	27.6	17.9	25.7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 이규훈, 전계자료, p.163.

2) 전자상거래 활용 현황

(1) 사업체부문별 전자상거래 활용 현황

사업체부문별 전자상거래 활용현황을 볼 때 전체사업자 442,655중에서 광주·전남 사업자는 28,900업체로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어서 광주·전남지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5.2%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의 활용도는 기업의 대내외적인 활동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전자무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의 산업기반의 확보 및 전자상거래기반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7>에서는 사업체부문의 전자상거래 이용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사업체부문 전자상거래 이용 현황

구분	전체 사업체	전자상거래 유경험 사업체	판매						구매					
			B2B		B2C		B2G		B2B		B2C		B2G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442,655	43,306	6,516	15	11,145	25.7	1,151	2.7	23,283	53.8	10,234	23.6	3,589	8.3
지역별														
서울	123,787	17,582	3,562	20.3	5,590	31.8	131	0.7	10,412	59.2	4,687	26.7	347	2
부산	35,216	866	110	12.7	137	15.8	13	1.5	512	59.1	174	20.1	121	14
대구	20,998	3,444	687	19.9	1,364	39.6	568	16.5	1,114	32.3	127	3.7	390	11.3
인천	22,484	1,392	300	21.6	167	12	70	5	770	55.3	565	40.6	160	11.5
광주	12,999	878	102	11.6	182	20.7	-	-	437	49.8	160	18.2	70	8
대전	10,970	863	42	4.9	18	2.1	-	-	169	19.6	614	71.1	122	14.1
울산	7,591	1,146	6	0.5	30	2.6	-	-	1,090	95.1	19	1.7	42	3.7

구분	전체 사업체	전자상 거래 유경험 사업체	판매						구매					
			B2B		B2C		B2G		B2B		B2C		B2G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경기	83,485	5,613	589	10.5	741	13.2	115	2	2,865	51	2,243	40	393	7
강원	13,668	610	258	42.3	97	15.9	-	-	444	72.8	-	-	84	13.8
충북	12,538	1,458	158	10.8	799	54.8	70	4.8	486	33.3	232	15.9	160	11
충남	14,960	1,383	2	0.1	85	6.1	84	6.1	766	55.4	356	25.7	208	15
전북	14,740	1,368	-	-	158	11.5	-	-	914	66.8	88	6.4	391	28.6
전남	15,901	1,235	160	13	197	16	90	7.3	668	54.1	195	15.8	273	22.1
경북	21,303	2,778	194	7	783	28.2	9	0.3	1,402	50.5	193	6.9	667	24
경남	26,165	2,123	330	15.5	330	15.5	-	-	1,147	54	581	27.4	146	6.9
제주	5,850	568	16	2.8	467	82.2	-	-	87	15.3	-	-	15	2.6

주) * 기준시점 : 2001년 6월~2002년 6월

* 사업체 : 전국의 종사자수 5명 이상 사업체(통계청,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조)

* 전자상거래 유경험 사업체 :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판매 또는 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

* 전자상거래 : 인터넷을 매개로 한 판매 또는 구매(TV 홈쇼핑이나 통신판매를 이용한 거래는 제외)

자료 : 한국전산원 정보화 통계 DB서비스(<http://stat.nca.or.kr>)

Ⅲ. 광주 · 전남지역 전자무역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교육현황

1. 전자무역 활용현황 및 전망

1) 전자무역 활용비중 및 애로점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전자무역 활용비중은 다음의 <표 8>에서 보듯이, 평균 32.0%정도이며 중화학분야의 기업들이 타 산업보다 높은 34.4%의 활용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40.5% 비율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자무역의 활용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표 9>에서 보듯이 전체 기업 중에서 특별

<표 8> 전자무역 활용비중

구분	전체	산업별			규모별	
		1차산업	경공업	중화학	대기업	중소기업
19%이하	53.1	71.9	558.5	49.2	37.5	54.8
20~39%	14.4	10.5	15.1	14.4	15.6	14.3
40~59%	12.7	7.0	10.9	14.0	16.7	12.3
60~79%	9.0	8.8	5.3	10.6	15.6	8.3
80%	10.8	1.8	10.2	11.8	14.6	10.4
평균	32.0	21.6	28.7	34.3	40.5	31.3

자료 : 산업자원부 · 한국무역협회, 「2003년도 수출산업실태조사」, 2003.11.

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기술인프라부족, 전문인력부족, 비용상의 부담순으로 활용의 부족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표 9> 전자무역 활용부족 이유

구분	전체	산업별			규모별	
		1차산업	경공업	중화학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인력부족	19.1	12.3	22.2	18.4	14.6	19.6
기술인프라 미흡	23.5	14.0	21.8	25.0	32.3	22.6
비용상의 부담	9.3	7.0	11.3	8.6	4.2	9.8
특별한 필요성 없음	44.2	59.6	43.0	43.4	43.8	44.2
기타	2.3	3.5	1.4	2.6	3.1	2.2
무응답	1.6	3.5	0.4	2.0	2.1	1.5

자료 : 산업자원부 · 한국무역협회, 전계자료.

2) 전자무역의 전망

IT 기술발전 및 인터넷의 확산으로 전자무역의 빠른 확대가 예상되며, 마케팅, 계약, 운송, 결제 등 제반무역 업무의 전자화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e-MP를 통한 전세계 수출규모는 2000년 8억 달러, 2001년 65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4,0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글로벌 경쟁의 격화, 지식기반 사회의 진전 및 네트워크화, 상품의 서비스화 및 산업내 무역과 본지사간 무역의 확대 등으로 전자무역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세계경제의 개방화에 따라 산업·기업내 무역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 확대와 후발공업국의 가공공업형 산업구조 발전을 기반으로 산업내 무역 및 본지사간 무역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 5만여 다국적 기업이 28만여 해외지사를 운영하면서 세계교역을 좌우하고 있으며, 미국은 1999년 총 수입의 47%, 총수출의 32%가 미국 내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간의 거래였다. 특히 한국의 대미수출 가운데 미국 내 모기업과 한국진출 자회사간 거래가 1992년 27%에서 1999년 49%로 매우 급성장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세계무역의 소프트화로 보험, 운송, 관광 등 서비스교역이 1990년대 이후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전체교역의 18.8%인 1조 4,350억 달러에 달한다.²⁾

2. 광주·전남지역 무역관련 대학과 민간교육기관 교육 현황

1) 대학(교)의 무역관련 설치 학과 현황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무역규모/GDP)가 70%에 달할 정도로 무역이 우리경제의 중추적 역할

2) 권영대, "한국의 전자무역인력양성 방안", 「동계정기학술발표대회 및 2003년 제1회 e-Trade 산학연 종합포럼」, 통상정보학회, 2003.12, pp.170-174.

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중계무역 활성화 등과 2010년 교역규모 6,000억\$ 무역대국 진입목표 달성 및 산업·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자무역(e-Trade)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역전문인력의 수급실태 조사결과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중장기 무역인력양성대책의 수립·추진이 절실하다.³⁾ 또한 다음의 <표 11>에서 보듯이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의 무역관련 설치학과 현황을 보면 광주 전문대학 포함 18개 대학중 5개 대학이 무역관련 학과가 있으며, 전남은 20개 대학 중 5개 대학이 무역관련 학과를 운영중이다.

<표 10> 무역전문인력 수급현황 및 향후 전망

구분		2001	2002	2005	2010
소요		26,100	29,800	37,300	74,600
공급	대학	10,375	10,375	10,975	10,975
	민간교육기관	2,000	2,000	2,000	2,000
	소계	12,375	12,375	12,975	12,975
과부족		13,725	17,425	24,325	61,625

자료 : 산업자원부·한국무역협회, 「2000년 무역전문인력 수급실태 등에 관한 연구보고서」, 2000.
 산업자원부·한국무역협회, 「2001년 무역관련인력 양성대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2001.

<표 11>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의 무역관련 설치 학과 현황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총계	
	학교수	설치대학수	학교수	설치대학수	학교수	설치대학수
광주	11	3	7	2	18	5
전남	10	4	10	1	20	5
계	22	7	17	3	39	10

주 : · 무역관련 설치학과에는 국제통상, 물류(유통)학과 등도 포함함.

- 대학 교 :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목포대, 순천대, 여수대, 한려대
- 전문대학 : 송원대, 서강정보대, 광양보건대

자료 : 김종득, “산·학·관 연계를 통한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 「제1회 지역 e-Trade 전국순회포럼」, 광주상공회의소·한국통상정보학회, 2004.6, p.25.

2) 민간교육기관 무역실무 강좌 개설 현황(직업학교 포함)

광주·전남 지역 민간교육기관의 무역실무 강좌 개설 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 12>에서 보듯이 광주지역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 지부가 가장 활발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광주상공회의소가 그 뒤를 따른다. 또한 전남지역은 목포상공회의소, 순천/광양 상공회의소, 그리고 직업전문학교에서 무역관련 교육을 하고 있어 총 8개 기관이 무역관련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3) 산업자원부, 「2003년도 산업자원부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2.8, pp.498-449.

<표 12> 민간교육기관 무역실무 강좌 개설 현황(직업학교 포함)

지역	기관명	개설강좌명	개설형태	교육대상	비고
광	한국무역협회	광주무역아카데미(수출학교)	년 2회	회원사,	매년 4월, 9월
	광주·전남지부	전남무역실무학교(3개 지역)	년 1회	일반, 학생	매년 5~6월중
	광주상공회의소	회원업체 무역실무강좌	년 1회	-	-
	광주·전남테크노파크	-	-	-	-
주	중소기업진흥공단	-	-	-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	-	-
전	목포상공회의소	전남무역실무학교	년 1회	-	매년 5월, 6월중
	순천/광양 상공회의소	전남무역실무학교	년 1회	회원기업 무역 실무 담당자	매년 5월, 6월중
남	서광직업전문학교	무역실무 및 무역영어	년중	일반	-
계	8개기관				

주 : · 광주·전남지역내 직업전문학교는 광주 15개, 전남 10개 총 25개 설치·운영.
· 전문학교에 설치된 전자상거래 강좌는 홈페이지 제작, 웹디자인 등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양성이 주 내용임.
자료 : 김종득, 전제논문.

3) Trade Incubator사업단 설치·운영

광주·전남지역에서 TI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다음의 <표 13>에서 보듯이 조선대학교와 광주여자대학교로 광주소재 대학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아직 전남지역에서는 TI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없다.

<표 13> TI사업단 설치·운영 대학

설치대학	설치년도	교육학생 수	수료학생수
조선대학교	2001.9	1기 : 29명	1기 : 23명
		2기 : 35명	2기 : 31명
		3기 : 37명	3기 : -
광주여자대학교	2003.8	1기 : 25명	1기 : -

자료 : 김종득, 전제논문.

2) 현황분석

(1) 학과의 통합(학부제 시행)에 따른 무역전공교육이 위축

무역전공자의 졸업생수가 다음의 <표 14>에서 보듯이 1999년을 기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순수 무역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은 조선대(무역학과), 광주대(e-비즈니스), 목포대(무역학과), 순천대(사이버무역전공) 등 4개 대학이다. 전문대의 경우에는 물류(유통)를 전공으로 하고 있으며, 교과과정에 무역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4> 무역관련 인력 공급

	1998	1999	2000	2001	2002
대학 무역학과	5,462	5,538	5,574	5,685	5,768
전문대 무역과	2,384	3,520	2,789	2,237	1,489
계	7,846	8,758	8,363	7,922	7,257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3.

(2) 광주·전남지역내 민간교육기관의 부족

현재 지역내 무역실무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 등 8개 기관이며, 교육실시도 년중 1회 ~2회 실시하고 있어 무역실무교육이 부족하다. 이 지역내 25개 직업전문학교 중 순천서광직업전문학교만이 무역실무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내 일반, 학생들은 서울(무역아카데미)에 의존하고 있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중심의 인력개발이 중심이 되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인력의 유출로 지역내 산학협력 연결고리가 제한된다.

(3) 지방 중소기업의 전자무역에 대한 인식의 한계

이 지역은 동부권(순천, 여수, 광양)을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한 기업체이며, 산업내 기업간 구조가 소수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내수시장의 마케팅 전략에 국한하여 수출마인드가 부족하고, 각 기업체들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전자무역 인프라 확충의 미비한 실정이다.

IV. 성공사례를 통한 전자무역 전문인력 양성방안

1. 성공사례 - 조선대학교 TI사업단

조선대학교 TI사업단은 산업자원부가 시행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전문인력양성사업단으로서 지난 2001년 9월 14일 전국 9개 대학과 함께 Trade Incubator 사업 참여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TI사업은 무역관련교육 및 현장실습을 통해 무역전문인력을 조기양성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수출중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산학연계교육을 통한 현장교육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으며, 기업체 역시 전문영역(무역실무능력)의 실무지식을 겸한 인력이 요구

되는 시점에서 무역이론교육을 비롯해 무역유관기관의 현장견학, 무역업체에서의 실습을 통한 실무능력의 배양 등을 통해 무역전문인력 양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조선대학교 TI사업단의 산학연 프로그램을 통한 수출성공사례의 개관과 본 사례의 시사점을 간략히 서술하였다.

1) 수출실적내용

조선대학교 TI사업단에서는 4개월의 노력 끝에 2004년 3월 10일에 말레이시아에 볼펜 등 문구류를 아래의 <표 15>와 같이 수출하였다.

<표 15> 수출내용

수출일자	2004년 3월 10일	품명	볼펜(GEL TYPE) / "아로마향기나는 볼펜" 등
바이어	Harvest Grade Enterprise Etm sdn., Penang, Malaysia		
금액	USD 1,177.00	결제방식	T/T In advance
계약서	Profoma Invoice	발송형태	EMS
바이어 발굴과정	각국문구업체 디렉토리 정리 ▶ C/L발송 / 포스팅 ▶ 담당자 명함 과 무역서한 도착 (10월) ▶ 제품협의를(주1회정도 서한교환, 전화)		
계약업체	KOBIZONE Co, Ltd.(Gwang-Ju Branch Office).		
협력업체	동양산업(경기도 군포)		

자료 : 김종득, 전계자료.

2) 시사점

위의 수출성공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⁴⁾

첫째, 학생들이 쌓아온 무역실무능력을 바탕으로 직접 수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록 수출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제품의 선택과 해외시장 진출지국의 결정, 무역계약의 성립과 사후 대금결제부문까지 직접 수행함으로써 이론적인 지식에 실전능력까지 겸비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계약의 전단계인 시장조사 및 바이어와의 협상과정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한 전자무역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전자무역의 도입 및 활성화의 필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하겠다.

둘째, 창업이나 무역업체 진출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실전능력을 쌓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무역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무역업무와는 거리가 먼 직업(또는 직종)으로 진출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성공사례를 계기로 필자가 속한 대학내에서도 무역에 관한 인식이 보다 더 새롭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창업이나 무역업체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전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주요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4) 보다 자세한 자료는 조선대학교 TI사업단 홈페이지(<http://www.chosun.ac.kr/~ti>)를 참조하십시오.

2. 전문인력 양성방안

21세기에 있어서 기업들의 수익창출은 상품의 생산과 내수시장의 확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여부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해외를 대상으로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의 사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터넷이 주요한 무역업무 수행의 수단이 되어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문희철(2000)의 “사이버무역전문 인력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의 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우수 잠재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전문교과과정 개설 및 운영, 현장학습 강화 및 실습여건 개선, 교수요원의 양성, 원격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되며, 전문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산·학·관 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사이버무역 분야별 전문인력 수급 전망에 대한 통계, 사이버무역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요구된다.⁵⁾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산·학·관 연계 기본틀, 대학, 기업체, 정부(지방자치단체)등으로 역할을 구분하였다.

1) 산·학·관 연계 기본틀

무역전문인력 양성의 최우선 과제는 대학의 이론적 교육기반과 무역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그림 1> 산·학·관 연계 기본틀

자료 : 김종득, 진계자료.

5) 문희철, “사이버무역 전문인력 양성 :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역학회지」, 제25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0, pp.93-116.

의 실무교육기반을 활용하여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지식을 겸비한 국제무역 및 국제통상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산·학·관 연계의 정립이 요구된다.

위의 <그림 1>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 기본틀이 정립되면, 무역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무역실무 교육과 지역업체의 산학협력 연계교육을 통한 인턴쉽 이수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무역전공자의 무역마인드 고취는 물론이고, 무역실무이론 교육과 산학협력연계교육을 통한 현장학습 체험으로 무역실무능력의 배양 및 무역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의 양성과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통상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확고해 질 것이다.

2) 대학의 역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제공의 출발점은 대학의 교육이다.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무역전공 교육의 특성화에 역점을 두어 전자무역 및 통상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은 학생들에게 무역에 대한 흥미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⁶⁾.

둘째, 교과과정에 산학연계를 통한 현장실습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확충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무역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도입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전문인력은 무역에 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포함한 IT능력 함양 및 외국어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IT교육의 강화와 대학내 어학원의 적극 활용을 통한 어학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기업체의 역할

광주·전남지역 기업체들의 실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수 장치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들이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과의 협력업체 관계로 형성되어 있어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조차 마케팅과 관련된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기업과의 협력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에도 커다란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 지역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전자시장에의 진출을 위한 전자무역의 활성화의 토대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전문무역인력 양성과 관련한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바, 기업체에 요구되는 역할

6) 예를 들면 조선대학교에서는 현재 무역전문인력양성과 관련하여 TI사업단을 비롯하여 IRP 21(Industrial Relationship Program 21 : 산학연계전공 프로그램), NICE(New International Chosun Education) 인증제도(국제통상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협력을 통한 학생들의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예비 무역전문인력에 대한 현장 기초훈련 기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위의 현장실무교육의 제고를 통해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시 인턴십을 수료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무역실무에 투입되기 위한 재교육이 불필요 또는 재교육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대기업 본사의 80%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편중은 더욱 심하여 수도권이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전남지역의 500대기업의 수는 광주·전남 각각 6개(1.2%), 2(0.4%)개이며, 전체 매출에서도 각각 0.3%와 0.2%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이 지역의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인력들이 산업기반의 취약과 취업 대상 기업들의 부족으로 인한 인력 유출을 방어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업의 유치 및 신규산업의 육성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인 바,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무역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업체 현장실무교육(인턴십)시 교육비를 일정비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경영의 애로점을 겪고 있는 이 지역 기업체들에는 자금의 부담 없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자무역전문인력 양성 및 고급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IT사업단에 대한 지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국제자매결연을 맺은 해외 도시로의 어학연수 장학생을 선발하여 어학능력을 갖춘 무역 및 통상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현재 광주광역시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지방인력의 무역아카데미 위탁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연수기회만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선발 요원이 과정 수료 이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체의 선정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넷째, 산업자원부가 2003년에 해외 교포무역인을 활용한 수출촉진책을 시행하고 해외 교포무역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해외 교포무역인을 활용한 수출촉진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한 해외교포인력 양성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학생들과 교포학생 및 기업들과의 교류관계를 증진하여 학술 및 비즈니스를 상호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7) 현재 무역아카데미 전자무역마스터과정에 이수 후 광주광역시 소재 무역업체에 1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3명을 선발하여 교육에 참가시켰다(2004년 7월 현재 3명 수료, 3명 교육 중).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일부 해외 교포무역인들이 개별적으로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가 “해외교포무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촉진 대책을 마련하였다.⁸⁾

V. 결 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처럼 큰 나라는 몇몇 나라로 손꼽힌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자국경제발전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내외를 차지하며, 유럽의 선진국역시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크지만 EU틀 안에서 내국시장과 같은 경제성장을 누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경제질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미국, 일본, EU선진국들과 경쟁을 해야하며, 중저가시장에서는 중국, 동남아 등과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무역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통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뿐만 아니라 무역에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기업이 국가의 개념에서 벗어나 다국적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업환경에 맞는 인재의 양성은 대학의 큰 몫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I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인재양성의 한 방향을 3년여간의 운영에 따른 내용을 통해서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성공사례로써 조선대학교 TI사업단은 산업자원부가 시행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전문인력양성 사업단으로서 지난 2001년 9월 14일 전국 9개 대학과 함께 Trade Incubator 사업 참여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TI사업은 무역관련교육 및 현장실습을 통해 무역전문인력을 조기양성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수출증대를 주요 목표로 하였다. 조선대학교 TI사업단의 산학연 프로그램을 통해 4개월의 노력 끝에 2004년 3월 10일에 말레이시아에 불펜 등 문구류를 수출하였다. 조선대학교 TI 사업단의 수출성공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첫째, 학생들이 쌓아온 무역실무능력을 바탕으로 직접 수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 창업이나 무역업계 진출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실전능력을 쌓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전문인력 양성방안으로써 산·학·관 연계 기본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학의 역할로, 무역전공 교육의 특성화에 역점을 두어 전자무역 및 통상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교과과정에 산학연계를 통한 현장실습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고, 끝으로 전자전문인력은 무역에 관한 전문지

8) 본 사업의 실행주체는 1981년에 해외 교포무역인들이 결성한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 : World Federation of Overseas Korean Trades Association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 산업자원부, “해외 교포무역인을 활용한 수출촉진책 마련 시행”, 산업자원부 무역진흥과 보도자료, 2003.2.18, p.1.

식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포함한 IT능력 함양 및 외국어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IT교육의 강화와 대학내 어학원의 적극 활용을 통한 어학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기업체의 역할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학생들의 현장실무교육 실시하여 예비 무역전문인력에 대한 현장 기초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현장실무교육 제고를 통해 장기적으로 인력수급시 인턴쉽을 수료한 인력을 채용할 기회 확대해야 한다.

넷째,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써, 산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무역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전자무역전문인력 양성 및 고급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끝으로 광주광역시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지방인력의 무역아카데미 위탁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TI사업을 운영함에 따른 성공사례, 인력양성방안, 기업체, 정부의 역할 및 방향을 살펴보았는데, TI사업이 이제 3년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좀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공사례를 차후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학이 보다 적극적인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대, “한국의 전자무역인력양성 방안”, 「동계정기학술발표대회 및 2003년 제1회 e-Trade 산학연 종합포럼」, 한국통상정보학회, 2003.12.
- 김종득, “산·학·관 연계를 통한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 「제1회 지역 e-Trade 전국순회포럼」, 광주상공회의소·한국통상정보학회, 2004.6.
- 문희철, “사이버무역 전문인력 양성 :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역학회지」, 제25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0.
- 산업자원부, “2010 세계8대 무역대국진입을 위한 무역인력양성대책”,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보도자료, 2003.1.22.
- _____, “21세기 디지털경제시대 사이버 무역인력 양성대책”, 1999.12.
- _____, “해외 교포무역인을 활용한 수출촉진책 마련 시행”, 산업자원부 무역진흥과 보도자료, 2003.2.18.
- _____, “해외교포 2-4세를 무역인력으로 양성키로-차세대무역스쿨”, 산업자원부 무역진흥과 보도자료, 2003.7.21.
- 산업자원부·무역협회, 「2000년 무역전문인력 수급실태 등에 관한 연구보고서」, 2000.
- _____, 「2001년 무역관련인력 양성대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2001.

안세영·심상렬, “무역의 사이버화와 우리나라 사이버 무역인력 수급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24권 3호, 한국무역학회, 1999.12.

이규훈, “e-Biz관련 지역별 일반현황”, 『지역균형발전과 e-Biz 활성화 정책세미나』, 산업자원부, 2003.6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보화수준평가”, 2002.

한국경제신문, 「2010 산업비전 산업 4강으로의 길」, 2002.12.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 지부, 『한국무역통계』, 2001.

한국은행 광주지점, 『광주·전남지역 지역경제연보』, 2002.

<http://www.mocie.go.kr>

<http://www.tradecampus.com>

<http://www.maf.go.kr>

<http://www.ktnet.co.kr>

<http://www.kita.net>